아이들 시간표를 짜다가,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의 AI 활용 기록 · 화면 속 이름은 모두 별칭입니다

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국어와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나머지 과목은 원래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듣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짧은 이동이, 어떤 아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곁에는 실무사 선생님, 사회복무요원 선생님 같은 지원인력분들이 함께합니다. 누가 몇 교시에 어느 아이와 함께할지, 쉬는 시간에는 누가 어느 층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지. 이 시간표를 짜는 것이 제 일 중 하나입니다.

매일 다시 짜는 시간표

처음 한 번 짜는 건 괜찮습니다.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 지원인력 선생님 한 분이 연수로 한 시간 자리를 비우시는 날, 아이 한 명이 결석한 날, 원반에 갑자기 행사가 생긴 날. 그런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시간표를 펼쳐 놓고 퍼즐을 다시 맞춥니다.

한 칸을 옮기면 다른 칸이 비고, 그 칸을 채우면 또 다른 선생님의 쉬는 시간이 겹칩니다. 겨우 맞추고 나면 메신저로 한 분 한 분께 바뀐 내용을 보내 드리고, 혹시 못 보셨을까 봐 복도에서 다시 여쭤봅니다.

>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시간표는 한 번 짜는 게 아니라 매일 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말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대신 맞춰 줄 수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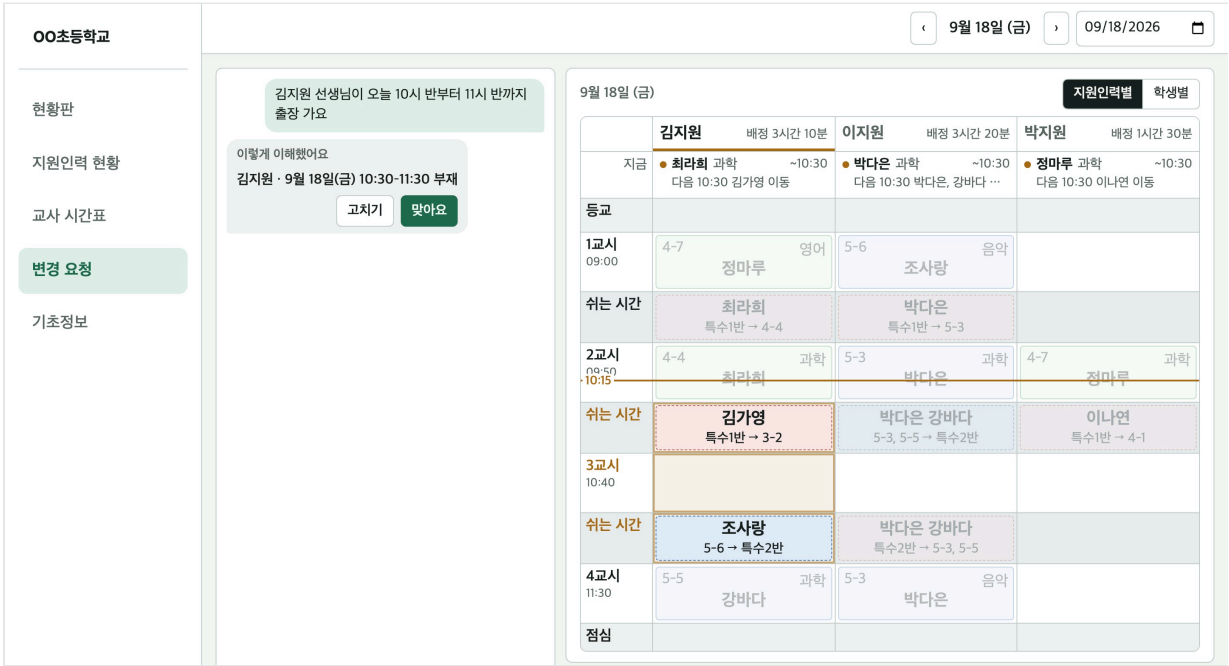


지금 쓰고 있는 현황판. 아이들 일곱 명의 하루와, 칸마다 함께하는 선생님이 한눈에 보입니다.

말로 하면, AI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간표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란 건 "편하게 말하기"였습니다. 평소 동료 선생님께 말하듯 "김지원 선생님이 오늘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출장 가요"라고 쓰면, AI가 이 문장을 읽고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인지 정리해 줍니다.

AI가 바로 시간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고 한 줄로 되묻습니다. 맞으면 [맞아요], 틀리면 [고치기]. 이 한 단계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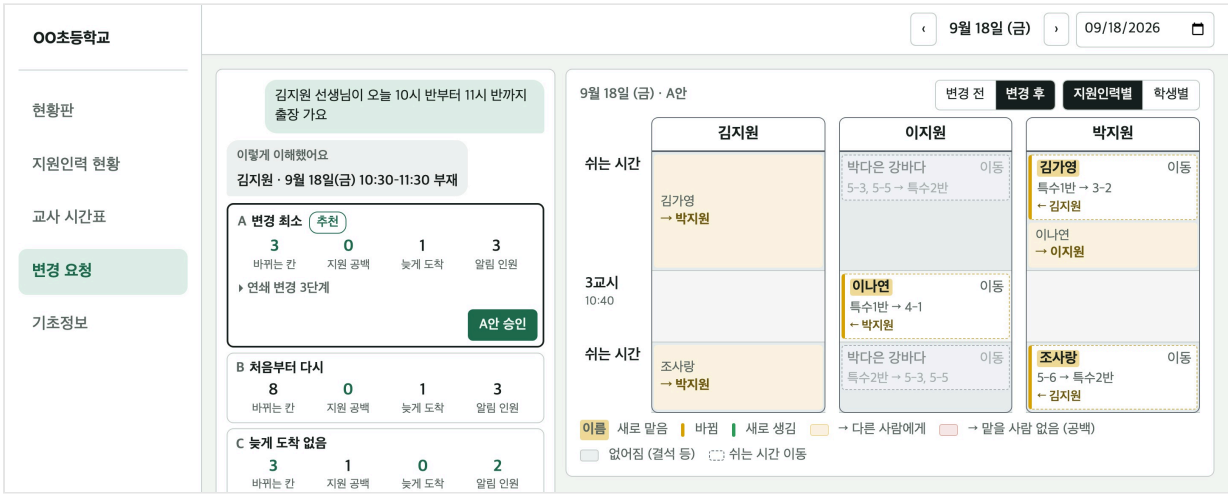
왼쪽에 대화, 오른쪽에 지금 시간표. AI가 이해한 선생님과 시간대가 표에 표시됩니다.

결정은 여전히 교사가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 맡을지는 AI가 "그럴듯하게" 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켜 온 원칙들, 예를 들어 같은 층으로 가는 아이들은 한 선생님이 함께 데려간다, 이 아이는 수업 시작 10분은 꼭 곁에 있어 준다, 이미 시작한 수업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계산기가 따로 수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만 내밀지 않습니다. 바뀌는 칸이 가장 적은 안, 처음부터 다시 짠 안, 아무도 늦게 도착하지 않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번 출장 예시에서는 첫 번째 안이 세 칸만 바뀌고 빈자리도 없었지만, 한 아이가 10분 늦게 교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안은 늦는 아이가 없는 대신 한 칸이 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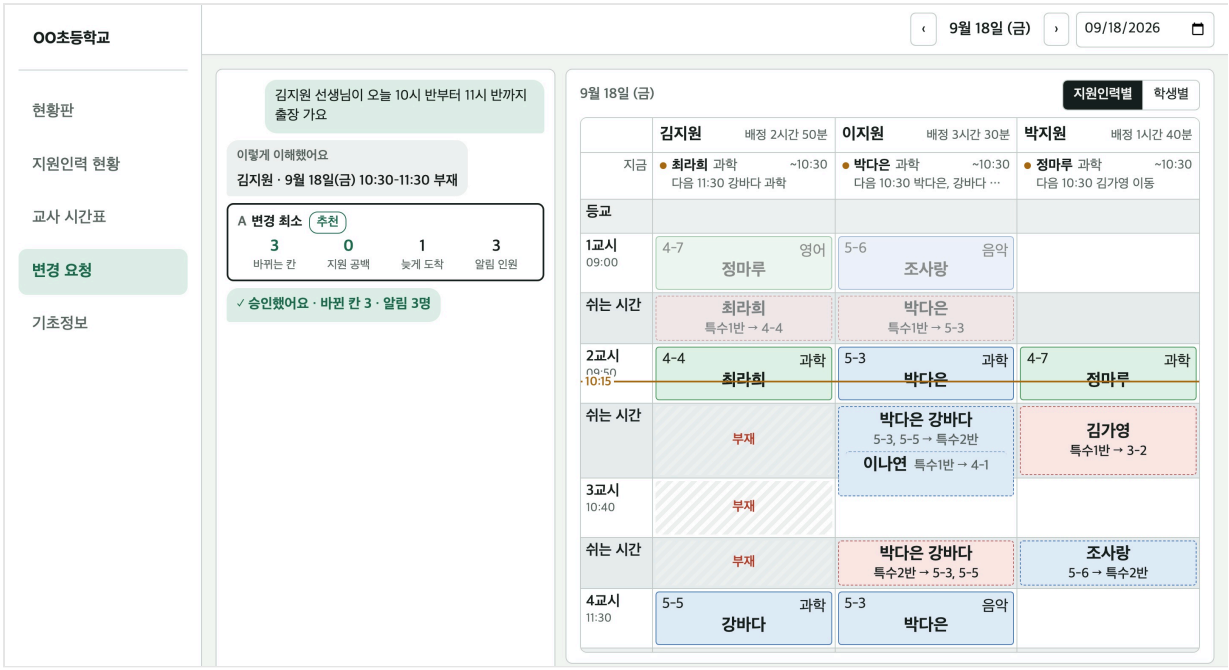
어느 쪽이 나을지는 그 아이를 아는 사람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일은 교사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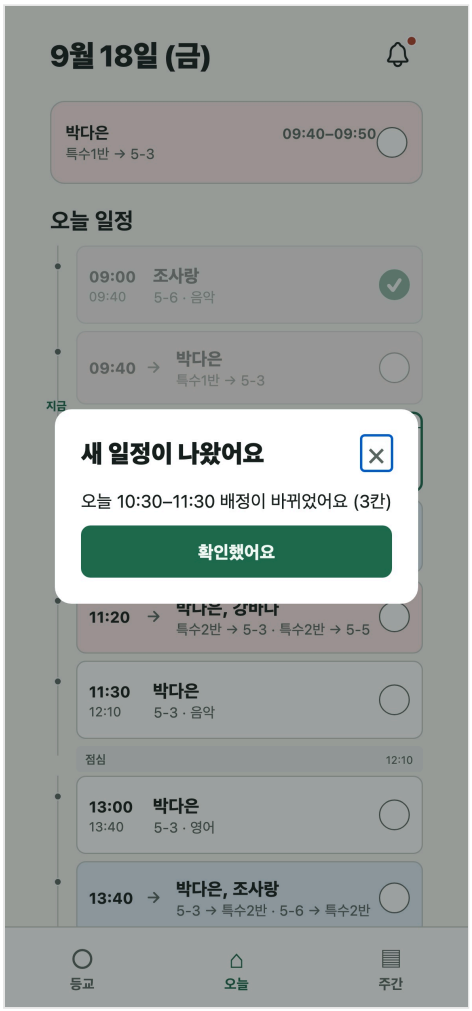
세 가지 안을 숫자로 비교하고, 고른 안이 시간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바로 봅니다.

승인하면,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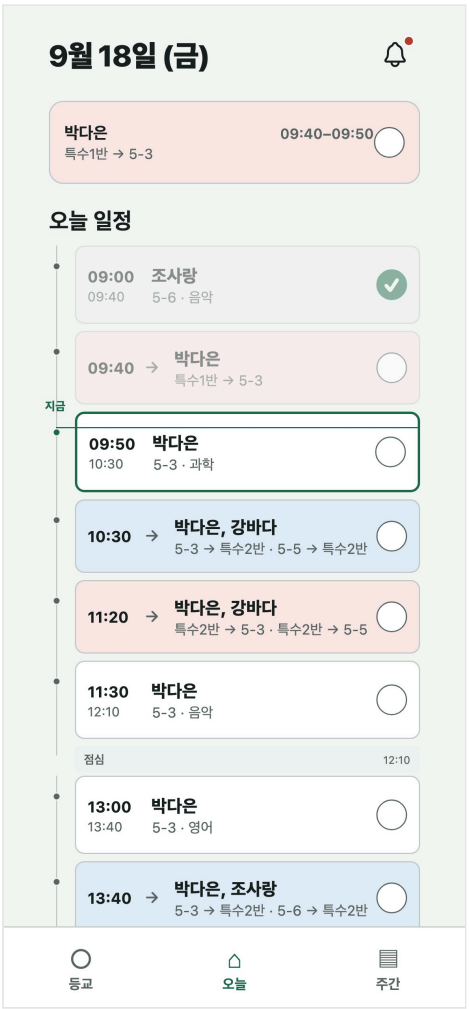
안을 고르고 승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바뀐 일정이 해당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바로 갑니다. 앱을 열면 "새 일정이 나왔어요"가 뜨고, [확인했어요]를 누르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도에서 "보셨어요?" 하고 여쭤보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하고 나면 출장 시간에는 '부재'가, 맡으셨던 일은 다른 선생님 칸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지원인력 선생님 앱. 바뀐 일정이 먼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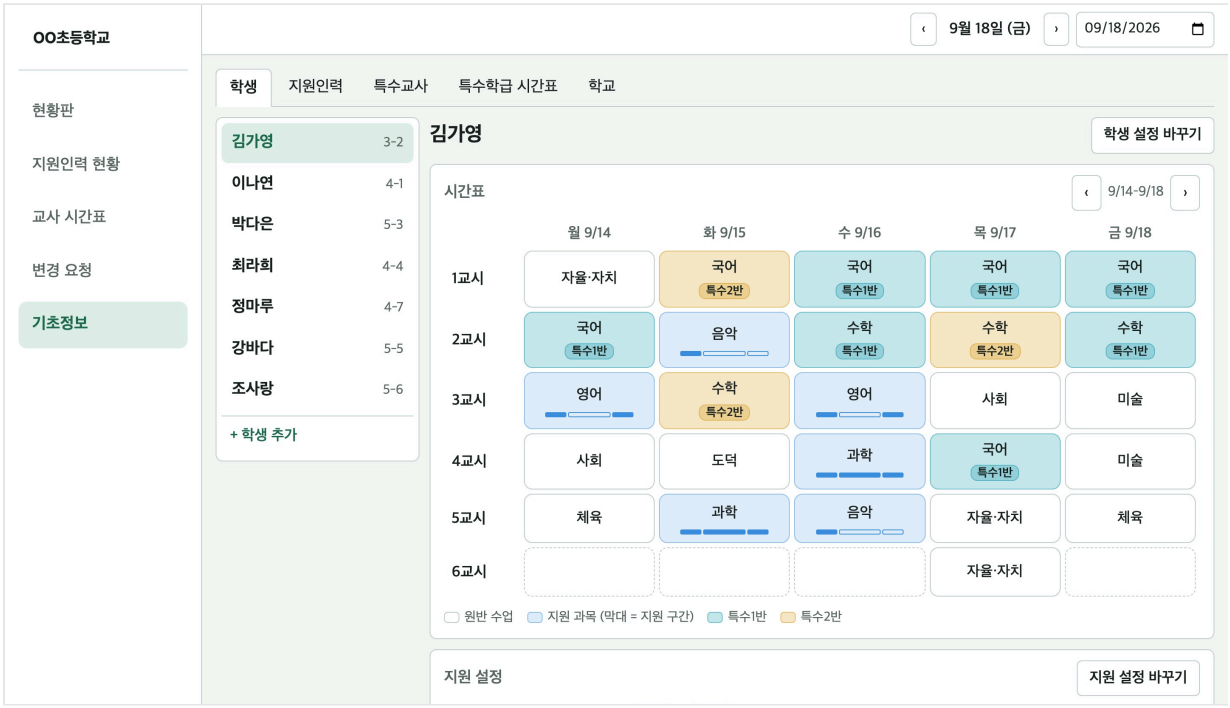


오늘 일정. 아이와 이동을 마치면 [도착]을 누릅니다.

써 보니 달라진 것

표를 펼쳐 놓고 누가 비는지 찾던 시간이, 문장 한 줄을 쓰고 안을 고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하고 혼자 고민하던 것을, 바뀌는 칸과 빈자리, 늦게 도착하는 아이 수를 보며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이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칸마다 적어 둘 수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시간표를 붙잡고 있던 시간만큼, 교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마다 특수학급에서 듣는 과목과, 원반 수업에서 꼭 곁에 있어야 하는 구간(파란 막대)을 정해 둡니다.

만들면서 지킨 몇 가지

AI에게는 말을 알아듣는 일만 맡겼습니다. 언어 모델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매번 같은 답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들 하루가 걸린 일이라, 계산은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는 쪽에 맡겼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별칭으로만 다룹니다. 장애 유형 같은 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짜는 데 필요한 건 "언제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지"뿐이니까요.

그리고 만드는 일에도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딩을 처음부터 혼자 다 할 수는 없었기에,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 글씨는 없어도 돼요", "체크 표시는 오른쪽이 편해요" 하고 현장의 눈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해 보실 수 있어요

저처럼 매일 시간표 때문에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꼭 같은 도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쓰시는 대화형 AI에 우리 학교 원칙 몇 줄과 오늘 시간표를 붙이고,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아이 이름은 꼭 별칭으로 바꿔 주세요.

아래는 우리 학교 특수학급 지원인력 오늘 시간표와 배치 원칙이야.
[원칙] (예: 같은 층으로 가는 아이들은 한 분이 함께, ○○는 수업 시작 10분 꼭 지원)
[시간표] (표 붙여 넣기)

변경: "지원인력1이 10:30–11:30 출장"
먼저 네가 이해한 내용을 한 줄로 말해 줘.
그다음 원칙을 지키는 수정안 세 가지를 만들고,
안마다 바뀌는 칸, 빈자리, 늦게 도착하는 아이 수를 비교해 줘.
결정은 내가 할게.

AI가 칸 수를 잘못 세거나 원칙 하나를 놓칠 때도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꼭 선생님 눈으로 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아이들 하루를 지킵니다.

시간표 퍼즐 대신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만들었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